

연구논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An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Modeling to Analyzing Change Trajectory an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이영리^{a)} · 신명호^{b)} · 홍세희^{c)}

Young Ri Lee · Myungho Shin · Sehee Hong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형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에서 9차까지 4년 동안 수급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195명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는 초기에 선형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다 점차 증가속도가 감소하는 이차함수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교육수준, 자아존중감, 자원봉사경험 및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급 초기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 기초생활보장수급과 함께 삶의 만족도 증가가 교육수준이 낮은 수급자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폭이 둔화되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 자원봉사경험 및 건강상태는 모두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를 넘어서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과 그 영향요인을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a)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b)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c)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홍세희.

E-mail: seeehong@korea.ac.kr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수급자의 지속적인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회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정책의 개발을 기대한다.

주제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ongitudinal changes of life satisfaction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and its influence factor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olicy in perspective of enhancing recipients' will of independence and positive welfare. Data of 195 recipients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who received 4-year-consecutive-support were analysed through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Demographic factor (gender, age), life quality factor(job experience, educati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factor(volunteer experience, self-worth) were considered as the influence factors.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presents that the life satisfaction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increases linearly at initial state, and changes into quadratic function that decreases the speed of increasing. It showed extending welfare term doesn't guarantee increase in life satisfaction. For influence factors, education level from life quality facto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Life satisfaction of highly educated recipients steeply increases at the beginning, and reduces range of increase as their welfare term extending. Perceived health status, volunteer experience, and self-worth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itial point of recipients' life satisfaction. If the recipients have fine health status, volunteer experience, and high self-worth, their life satisfaction doesn't decrease drastically although the welfare term extends. Based on findings from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longitudinal changes of life satisfaction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implementation decision-making process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which can help people in need lead their life with high life satisfaction.

Key words: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life satisfaction, latent growth model

I. 서론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133만여 명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른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요구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수급자가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자립하고 자활에 대한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삶의 만족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는 비수급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윤명숙 2001; 박진호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정신건강상태 또한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Bell 1990; Kessler 1982; Pacitti & Dimmick 1996). 문제는 낮은 삶의 만족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금전적인 지원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을 생산적 복지가 아닌 일시적인 소비적 복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전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공공부조에서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단순히 더 많은 금전적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금전적인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파악해야 함을 시사

한다.

빈곤층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박용순(2001)은 빈곤층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서 찾았는데, 저소득층이 자립에 실패하는 이유로 자립의욕의 부족 및 사회적 지원망과 관심의 결여, 그리고 낮은 대인관계능력 등을 꼽았다. 또한 절대적인 빈곤보다 타자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빈곤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저소득층이 느끼는 빈곤감은 매우 높다(정진호 외 2002)고 할 수 있다. 수급자는 빈곤 그 자체로 사회적 위축을 느낄 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가정의 해체에서 비롯된 우울, 불안, 무기력, 좌절감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의 지속성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금전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수급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삶의 만족도가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양순 2007; 황옥성·이재모 2011; 주해연 2011). 그 외에도 수급자의 소득 만족도에 대한 연구(황순형 2001), 실제 저소득층이 아닌 체감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현대경제연구원 2014)에 주제가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종단적인 삶의 만족도를 추적할 수 없는 횡단적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가 미치는 자립의지 향상효과와 생산적 복지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기적인 삶의 만족도 변화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삶의 만족도 변화

삶의 만족도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어 왔다. Medley(1976)는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된 정도로 보았으며,

Kalish(1975)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정도 및 주위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삶의 만족도를 정의하였다. Sousa & Lyubomirsky(2001)는 삶의 환경에 대한 욕구에 대해 만족하거나 수용하는 정도를 삶의 만족도로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및 바라던 바에 대한 성취감(장상희 1983),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정도(최성재 1986), 인생의 목표나 욕구에 대한 기준들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박성복 2012)로 삶의 만족도를 정의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 지표에 따른 삶의 만족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김미숙·박민정 2000; 한형수 2004; 박선영 2009; Roh 2010).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은 수급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삶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일치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먼저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 비례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Stiglitz et al. 2009). 서인석 외(2014)는 한국 문화에서 특히 소득 격차가 큰 지역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소득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밝혔으며, 방하남(2000) 또한 삶의 만족도에 대해 소득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절대빈곤 수준을 벗어난 시점부터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낮다는 연구(Schyns 2000; Diener et al. 1995; Easterlin 1995)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asterlin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Easterlin et al. 2010)이 있는데, 이는 높은 소득수준이 반드시 높은 행복수준을 보장하지 않으며 종단적으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의 한계효용이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Veenhoven(1991)과 Diener et al(1993)도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 체감하는 곡선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으로 설명하였다. 구교준 외(2014)는 국가 간의 비교 연구에서, 이현송(2001)은 국내 사례에서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체감(遞減) 관계를 검증하였다.

2.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OECD 보고서(2013a)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인구학적 요인, 물질적 요인, 삶의 질적 요인, 그리고 정신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은 계층의식, 물질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삶의 질적 요인, 정신적 요인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같은 소득이라도 체감중간층이 체감저소득층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바를 시사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수급자는 서비스의 수급으로 인해 최저생활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기본적으로 보전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의미하는 물질적 요인은 배제하였으며, 두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향요인을 기본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수급자의 계층의식, 물질적 요인을 제외한 인구학적 요인, 삶의 질적 요인, 정신적 요인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인구학적 요인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성별, 연령을 포함한다. 성별에서는 여성일 때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김병조 2000; OECD 2013a), 이러한 결과는 종단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남녀의 삶의 만족도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에게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게 만드는 요인은 고용 및 건강 상태로 보고되는데(Boarini et al. 2012) 이 두 가지 요인은 여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에서는 김병조(2000)와 현대경제연구원(2014)의 연구에서 저연령층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강성진(2010)은 삶의 만족도와 나이 간에 U형태의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즉 저연령층일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며 은퇴하는 연령층에서 다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질적 요인은 근로, 건강, 교육수준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근로는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이며 근로자의 자아실현 및 경제적 수준 유지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 심리적, 육체적 건강 및 주관적인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OECD 2013a).

건강은 특히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eadey et al. 1993). 특히 본인이 직접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Edwards & Klemmack 1973; Swami et al. 2007).

교육수준은 대표적으로 학력을 들 수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김명소 외 2003; Blanchflower & Oswald 2011; 이영문 외 1999). 고학력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고용 확률을 가지게 되므로 더 좋은 건강상태를 가질 가능성도 높다(OECD 2013a).

정신적 요인은 자아존중감이나 봉사활동 등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뜻하는데(Rosenberg 1965),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Schimmack & Diener 2003). 삶의 만족도에 대한 봉사활동의 영향도 긍정적이다(문재우·유연웅 2013). 김병조(2000)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Rietschlin(1998)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우울한 감정이 완화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연구 및 영향요인에 따른 선행연구를 통해 종합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는 수급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을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은 2006년부터 9차에 걸쳐 사회복지계층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2.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복지패널조사에 참여한 패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수급자 195명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수급자로 처음 선정되어 연속으로 4년간 지원받은 가구다. 예를 들면 2011년 조사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경험’ 문항에서 ‘2011년 들어와서 받기 시작해서 2011년 말까지 받았다’에 응답하고, 2012년부터 ‘2012년 이전부터 2012년 말까지 받았다’에 응답한 경우를 포함한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으로 코딩하였으며,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삶의 만족도 평균 및 표준편차

종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1 차	2.51	.65
삶의 만족도 2 차	2.73	.52
삶의 만족도 3 차	2.77	.58
삶의 만족도 4 차	2.79	.56

2) 독립변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투

입한 독립변수는 <표 2>와 같다. 성별에서 남자는 '0', 여자는 '1'로 코딩되었으며, 연령은 연속형 변수이다. 건강상태는 '1=건강이 아주 안 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아주 건강하다'로 역코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0=무학 졸업', '1=초등학교 졸업',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재코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 10개 중 부정 문항 5개를 역코딩하여 총 10개 문항의 평균 값으로 대체하였다. 척도는 '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경험 및 자원봉사경험은 4년간의 분석기간 중 경험이 없을 경우 '0', 한번이라도 경험한 경우 '1'로 코딩하였다.

<표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세부요인별 기술통계

분류	영향요인	세부요인	빈도(명)	비율(%)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자(0)	94	48.2
		여자(1)	101	51.8
	연령	평균(표준편차)	66.95(13.88)	
삶의 질적 요인	근로경험	없다(0)	105	53.8
		있다(1)	90	46.2
	교육수준	무학(0)	41	21.0
		초등학교 졸업(1)	62	31.8
		중학교 졸업(2)	32	16.4
		고등학교 졸업(3)	45	23.1
		전문대학 졸업 이상(4)	15	7.7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2.52(.79)	
정신적 요인	자원봉사경험	없다(0)	183	93.8
		있다(1)	12	6.2
	자아존중감	평균(표준편차)	2.54(.33)	

3. 분석모형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관측되지 않은 잠재적인 성장요인을 추정하여 해당 변인의 변화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변화 함수 및 시간에 따른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Duncan & Duncan 2004). 또한 어떤 변수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요한 집단 통계치를 파악하여 집단 차원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 분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Duncan et al. 2006).

잠재성장모형은 두 단계를 통해 분석하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조건 잠재성장모형(unconditional LGM)을 통해 반복측정된 변수들의 평균과 공분산을 구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화궤적, 즉 평균변화곡선의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하게 된다. 이 때 평균 잠재성장모형의 각 계수의 분산이 변화에서의 개인적 차이를 의미한다(Duncan et al. 2006).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영향요인이 삶의 만족도 변화곡선의 초기치 및 기울기를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조건 잠재성장모형(conditional LGM)을 분석한다. 조건 잠재성장모형의 선형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_{ti} = \eta_{0i} + \eta_{1i}T_t + e_{ti} \quad (1)$$

$$\eta_{0i} = \alpha_0 + \beta_0w_i + r_{0i}$$

$$\eta_{1i} = \alpha_1 + \beta_1w_i + r_{1i}$$

이때 η_{0i} 는 시간이 0일 때 y의 기댓값을 의미하며, η_{1i} 는 시간이 0일 때의 순간변화율을 의미한다(홍세희 2015).

한편, 성장함수가 선형이 아닐 경우 잠재성장모형에서는 고차함수를 통해 성장함수를 탐색적으로 추정한다. 만약 성장궤적이 이차함수(quadratic function) 형태의 양상을 보일 경우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_{ti} = \eta_{0i} + \eta_{1i}T_t + \eta_{2i}T_t^2 + e_{ti} \quad (2)$$

$$\eta_{0i} = \alpha_0 + \beta_0w_i + r_{0i}$$

$$\eta_{1i} = \alpha_1 + \beta_1w_i + r_{1i}$$

$$\eta_{2i} = \alpha_2 + \beta_2w_i + r_{2i}$$

η_{0i} 는 시간이 0일 때 y 의 기댓값을 의미하며, η_{1i} 는 시간이 0일 때의 순간변화율, η_{2i} 는 변화에 있어서의 가속 혹은 감속도의 1/2을 의미한다(홍세희 2015).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 값의 단점을 고려하여(홍세희 2000) 절대적합도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합도지수 TLI(Turker-Lewis Index) 및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가 .06 이하, TLI와 CFI가 0.95 이상일 때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는 SPSS 21을 사용하여 각 변수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며, 잠재성장모형은 Amos 21.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 3>은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4차 전반에 걸쳐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자 개인의 시간 흐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이전 시점의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구학적 요인인 성별과 연령의 경우 기존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연구결과(김병조 2000; OECD 2013a; 현대경제연구원 2014)와 다르게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삶의 만족도와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아존중감, 자원봉사경험, 건강상태, 근로경험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 삶의 만족도 1차	1										
2. 삶의 만족도 2차	.445**	1									
3. 삶의 만족도 3차	.247**	.474**	1								
4. 삶의 만족도 4차	.391**	.421**	.421**	1							
5. 성별	-.005	.047	.083	-.019	1						
6. 연령	-.042	.000	.027	.078	.067	1					
7. 교육수준	-.102	-.023	-.031	-.119	-.215**	-.617**	1				
8. 자아존중감	.450**	.493**	.476**	.387**	-.013	-.075	-.009	1			
9. 자원봉사경험	.179*	.224**	.171*	.115	.034	-.172*	.106	.162*	1		
10. 건강상태	.400**	.376**	.397**	.283**	-.029	-.236**	.128	.484**	.080	1	
11. 근로경험	.154*	.199**	.162*	.131	.070	-.226**	.097	.279**	.105	.345**	1
평균	2.51	2.73	2.77	2.79	0.52	66.95	2.65	2.54	0.06	2.52	0.46
표준편차	0.65	0.52	0.58	0.56	0.50	13.88	1.26	0.33	0.24	0.79	0.50
왜도	-0.21	0.03	-0.66	-0.36	-0.07	-0.37	0.29	-0.09	3.68	0.60	0.16
첨도	-0.20	-0.44	0.37	-0.06	-2.02	-0.84	-1.08	-0.11	11.64	-0.58	-2.00

* $p < .05$, ** $p < .01$, *** $p < .001$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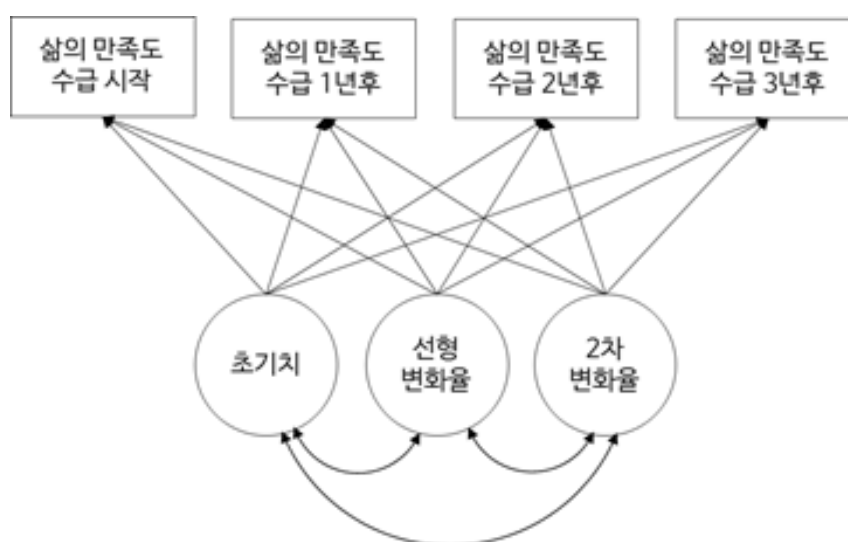
수급자 삶의 만족도 변화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함수를 다르게 하여 적합한 함수를 탐색하였다. 홍세희(2000) 연구에 따라 RMSEA, TLI, CFI가 적합도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무성장

모형과 선형모형의 경우, Hu &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RMSEA 값이 .06 이하로 분석되어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으나 TLI와 CFI의 값이 각각 .95를 넘지 않고 χ^2 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차함수모형의 경우 RMSEA, TLI, CFI 값이 모두 Hu & Bentler(1999)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χ^2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는 이차함수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각 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를 보여준다. <그림 1>은 수급자 삶의 만족도의 이차함수모형을 보여준다.

<표 4> 무조건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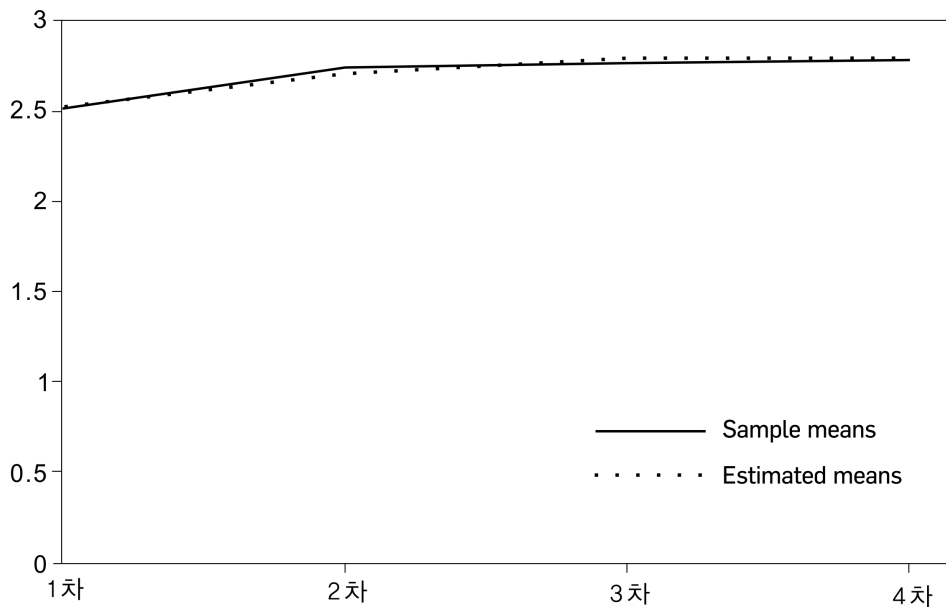
모형	$\chi^2(df)$	RMSEA	TLI	CFI
무성장모형	43.296(8)***	.151	.826	.768
선형모형	20.835(5)**	.128	.875	.896
이차함수모형	1.993(1)	.072	.961	.99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삶의 만족도 무조건 이차함수모형

최종적으로 이차함수모형이 선택되었고 분석 결과 수급자 삶의 만족도는 <그림 2>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다가 점차 그 증가폭이 둔화되는 이차함수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삶의 만족도 변화형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초기치,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치,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선형변화율에 의해 증가하나, 음수인 이차변화율에 의해 그 증가폭이 감소하여 순간변화율이 0이 되는 3.3 시점부터 감소세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3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부합하는 결과다. 또한 초기치,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여 관련 영향요인에 따라 삶의 만족도 변화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삶의 만족도 오차의 분산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 2차와 3차의 오차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 변화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이차함수모형 초기치,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구분	평균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초기치	2.515 ^{***} (.046)	.316 ^{***} (.086)
선형변화율	.251 ^{***} (.057)	.305 ^{**} (.113)
이차변화율	-.054 ^{**} (.017)	.023 ^{**} (.00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이차함수모형 오차 분산

	삶의 만족도 오차 1차	삶의 만족도 오차 2차	삶의 만족도 오차 3차	삶의 만족도 오차 4차
오차	.107	.122 ^{***}	.177 ^{***}	.130
(표준편차)	(.080)	(.023)	(.027)	(.069)

* $p < .05$, ** $p < .01$, *** $p < .001$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에서 초기치,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았을 경우 선형변화율은 낮아지고 이차변화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시작 시기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을 경우, 이후 삶의 만족도의 증가폭은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이 낮았던 개인에 비해 낮고 이차변화율에 의해 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급 시작 당시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개인은 삶의 만족도 변화가 크지 않고 수급기간이 지속되어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선형변화율의 경우 선형변화율이 클수록 이차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수급기간이 지속되면 삶의 만족도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이차함수모형 초기치,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의 공분산

	초기치-선형변화율	선형변화율-이차변화율	초기치-이차변화율
공분산	-.218*	-.081**	.053*
(표준편차)	(.097)	(.029)	(.024)

* $p < .05$, ** $p < .01$, *** $p < .001$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의 영향요인 분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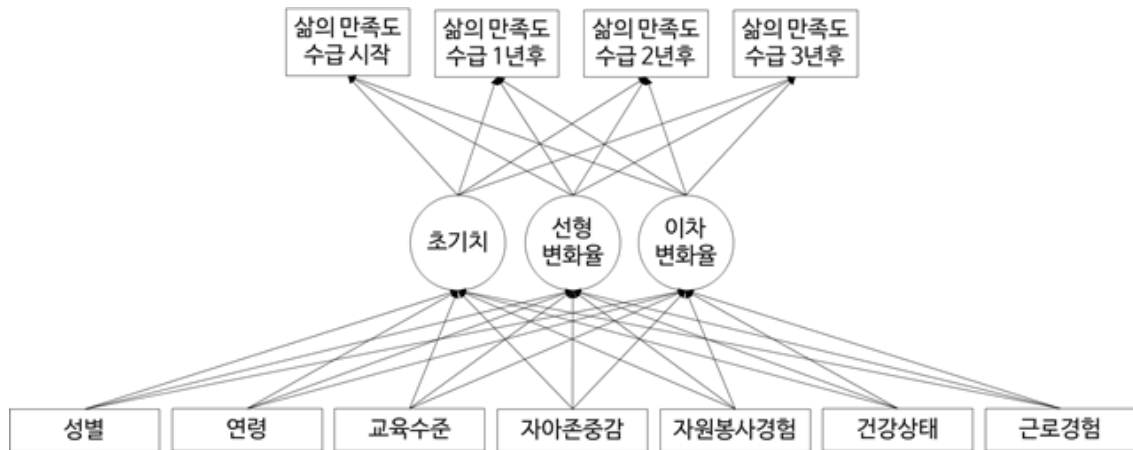
<표 8> 조건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chi^2(df)$	RMSEA	TLI	CFI
5.298(5)	.000	1.032	1.000

* $p < .05$, ** $p < .01$, *** $p < .001$

RMSEA, TLI, CFI 모두 Hu& Bentler(1999)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χ^2 값도 유의하지 않아 적절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분석된 조건 잠재성장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건강상태, 교육수준, 자원봉사경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 자원봉사경험, 자아존중감의 경우 모두 삶의 만족도 초기치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고, 자원봉사경험이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급자의 초기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수급자의 경우 동일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수급자 개인의 삶의 처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관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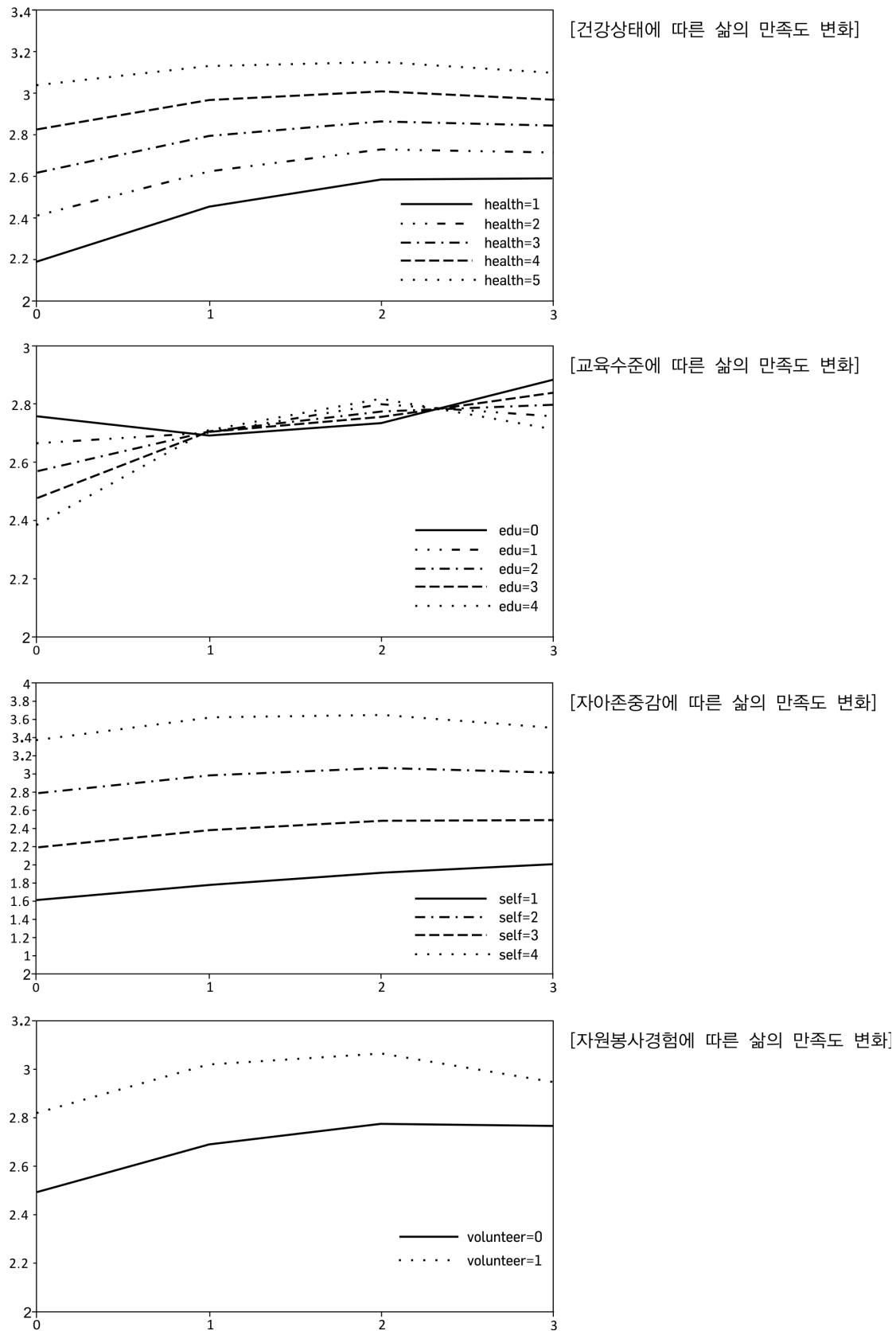


〈그림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삶의 만족도 변화 조건 잠재성장모형

〈표 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삶의 만족도 변화 영향요인 계수 추정치

영향요인	초기치 (표준편차)	선형변화율 (표준편차)	이차변화율 (표준편차)
성별	-.043 (.082)	.173 (.115)	-.057 (.034)
연령	-.002 (.004)	.009 (.005)	-.002 (.002)
건강상태	.211*** (.060)	-.049 (.084)	.007 (.025)
근로경험	-.031 (.087)	.048 (.122)	-.011 (.037)
교육수준	-.094* (.041)	.140* (.058)	-.041* (.017)
자원봉사경험	.335* (.169)	.032 (.238)	-.028 (.071)
자아존중감	.593*** (.139)	.040 (.196)	-.023 (.05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영향요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삶의 만족도 변화

선형변화율의 경우 교육수준만이 관련 있는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 초기 단계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에 비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기 때문에 수급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이차변화율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차변화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차변화율의 추정치가 음수로 나타나 선형변화율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감속도의 개념으로 본다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지면 삶의 만족도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수급자일수록 초기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 수급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가 빠르게 증가하나,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만족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어 결국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측하게 한다.

선형변화율과 이차변화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이 높았던 수급자의 선형변화율과 이차변화율이 초기 수준이 낮았던 사람에 비해 변화가 심하지 않고 감소하는 폭이 작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원봉사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는 초기치가 높아 선형 증가폭이 크지 않고 이차변화율에 의해 감소하는 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수급자의 사회심리적 특성인 건강상태, 자원봉사경험, 자아존중감이 수급기간 동안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형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에서 9차까지 4년 동안 수급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195명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는 초기에

선형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다 점차 증가속도가 감소하는 이차함수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는 무조건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건강상태, 교육수준, 자원봉사경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급 초기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 기초생활보장수급과 함께 삶의 만족도 증가가 교육수준이 낮은 수급자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폭이 둔화되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 자원봉사경험, 자아존중감은 모두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외에 삶의 만족도 선형변화율과 이차변화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없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았던 수급자의 경우 선형변화율의 증가폭이 작고 이차변화율에 의해 감소하는 정도가 삶의 만족도 초기 수준이 낮았던 사람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고, 자원봉사경험이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수급기간이 길어져도 삶의 만족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수급자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를 넘어서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과 그 영향요인을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와 같은 소비적 복지의 경우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복지제도의 개발과 실행에 앞서 살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수급자의 지속적인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회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정책의 개발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일반논문: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김명소·김혜원·한영석·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미숙·박민정. 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 29-47.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 241-268.
- 김양순.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재우·유연웅. 2013. “자원봉사활동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 87-107.
- 박선영. 2009. “지역사회 저소득 노인의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1): 78-90.
- 박성복. 2012. “일반논문: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주관적 영향요인.” 《한국행정논집》 24(4): 983-1010.
- 박용순. 2001. 《빈곤과 자립》. 학지사.
- 박진호. 2002. “공공부조제도에서 인식 스티그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하남. 2000. “한국노동패널 특집/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특별호 23: 133-154.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각년도)》, 보건복지부.
- 서인석·우창빈·기영화. 2014. “주관적 웰빙과 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한 소득의 한계성 및 상대성 검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1924-1941.

- 윤명숙. 20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정신건강실태와 재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발표 대회. 408-424.
- 이영문·김홍모·이문숙·이호영. 1999. “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정신건강수준.” 《신경정신의학》 38(6): 1234-1243.
- 이현송. 2001. “한국노동패널 특집: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욕구이론과 비교이론의 대비.” 《노동경제논집》 24(1): 231-251.
- 장상희. 1983.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부산시를 대상으로-.” 《사회조사연구》 2(1): 49-64.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주해연.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복지만족도 제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최성재. 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9: 233-25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보건복지정책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 연구.” 연구보고서 2002-16.
- 한형수. 2004.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8): 113-142.
- 현대경제연구원. 2014.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현대경제연구원》. 14-34호.
- 황순형.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수급자 만족도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황옥성·이재모.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서비스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2(3): 1-31.
- 홍세희. 2015. 《변화분석을 위한 잠재성장모형》. 서울: 에스엔엠 리서치 그룹.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ell D. 1990. “Poverty and Women's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5(3): 385-389.
- Blanchflower, D.G. & A.J. Oswald. 2011. “International Happiness: A New View on the Measure of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5(1): 6-22.

- Boarini, R., M. Comola, C. Smith, R. Manchin, and F. De Keulenaer. 2012. "What Makes for a Better Life?: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No. 2012/3)." OECD Publishing.
- Diener, E., M. Diener, and C. Diener.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51.
- Diener, E., E. Sandvik, L. Seidlitz, and M. Diener.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3): 195-223.
- Duncan, T.E. and S.C. Duncan. 2004. "An Introduction to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rapy* 35(2): 333-363.
- Duncan, T.E., S.C. Duncan, and L.A. Strycker. 2006.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 Easterlin, R.A.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1): 35-47.
- Easterlin, R.A., L.A. McVey, M. Switek, O. Sawangfa, and J.S. Zweig.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2): 22463-22468.
- Edwards, J.N. and D.L. Klemmack. 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4): 497-502.
- Headey, B., J. Kelley, and A. Wearing. 1993. "Dimensions of Mental Health: Life Satisfaction, Positive Affect, Anxiety and Depress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29(1): 63-82.
- Hu, L.T. and P.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lish, R.A.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C.A. :Cole Publishing Co.

- Kessler R.C. 1982. "A Dissaggre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erican-Sociological Review* 47: 752-764.
- Medley, M.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 OECD. 2013a.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 Pacitti R. and J. Dimmick. 1996. "Poverty and Mental Health: Underclaiming of Welfare Benefit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 395-402.
- Rietschlin, J. 1998.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48-355.
- Roh, S. 2010. "The Impact of Religion, Spirituality,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Immigrant Older Adults."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
- Schyns, P.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Changes in Income and Life-satisfaction in West Germany and the Russian Federation: Relative, Absolute, or a Combination of Both?" In *Advances in Quality of Life Theory and Research*(pp. 83-109). Springer Netherlands.
- Schimmack, U. and E. Diener. 2003. "Predictive Validity of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fo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2): 100-106.
- Sousa, L. and S. Lyubomirsky. 2001. *Encyclopedia of Women and Gender: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Impact of Society on Gender*. Vols. 2.
- Stiglitz, J., A. Sen and J.P. Fitoussi. 2009.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Revisited: Reflections and Overview.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 Swami, V., T. Chamorro-Premuzic, D. Sinniah, T. Maniam, K. Kannan, D.

- Stanistreet, and A. Furnham 2007. "General Health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2): 161-166.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접수 2015/11/6, 수정 2016/1/18, 게재확정 2016/1/28>